

## 편지의 광기\*

— 기유라그, 『포르투갈 수녀의 편지』

김 영 옥\*\*

###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18세기 서간체소설의 유행을 예고하는 기유라그의 『포르투갈 수녀의 편지』(1669)에 일관된 문학적 구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문학사에서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 이중의 목적은 『편지』의 주제를 편지의 광기, 즉 편지를 쓰는 주체의 비이성적 상태로 고찰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사를 일별함으로써, 실연당한 수녀의 감정과 언어를 표현하는 광기가 『편지』 해석의 쟁점임을 관찰하고, 이것은 결국 편지의 양태를 독백과 대화 중 결정하는 문제임을 확인한다. 이때 『편지』에서 대화로부터 독백으로의 이행을 재구성하고, 이 전환에 광기의 위험과 이성의 복구라는 서사를 부여한 레오 슈피치의 해석은 우리 분석의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우리가 입증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S1A5B5A07073433).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편지, 서간체소설, 이성, 광기, 독백, 대화

Letter, Epistolary Novel, Reason, Madness, Monologue, Dialogue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수녀의 각 편지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부재하는 대상과 육체적 접촉을 꿈꾸는 이상적 논리부터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편지 작성자의 역설적 논리까지, 고유한 광기에 의해 지배된다. 그런데 이 광기는 화자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화자가 편지를 쓰는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도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편지』의 문학적 구조는 광기와 이성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일련의 광기들의 연쇄이며, 이와 같은 광기의 연속적 형상화는 단지 주체의 이성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독백과 대화 사이에서 진동하는 편지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비판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편지』의 문학사적 위치는 광기에서 이성으로 회귀하는 고전주의적 이념 혹은 내면의 무질서를 자유롭게 묘사하는 낭만주의적 언어와 관련되기보다, 화자의 감정을 편지 매체의 특성과 결부시켜 사유한다는 점에서 서간체소설의 역사에 할당된다.

## 1. 『편지』라는 “문제”

1669년 익명으로 출판된 후 『포르투갈 수녀의 편지』(*Lettres portugaises*, 이하 『편지』)는 근대문학의 본질에 관한 여러 논쟁을 일으켰고, 프랑스문학사의 “문제”(problème)로 남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편지』의 문제를 ‘편지의 광기’라는 주제로 수렴시키고, 이 관점에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편지』에 일관된 문학적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텍스트에 대한 기초정보와 해석사를 종합하여 그것으로부터 주제를 도출하고 작업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편지』는 포르투갈의 수녀 마리안느(Marianne)가 자신을 버리고 고국으로 떠난 프랑스인 장교에게 보낸 다섯 통의 편지를 담고 있다. 한 때 모든 것이었던 사랑을 잃고 절망한 수녀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그 감정의 추이가 편지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워 자연

발생적으로 보이는 문체에 의해 표현된다. 상실을 마주한 여성의 감정이 가공되지 않은 채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적 분열과 모순의 이미지가 편지 곳곳에 산재하기 때문이다. 마리안느는 자신의 불행을 부정하고 왜곡하거나 이해하고 승화시키지만, 이 시도들은 대개 잠정적이며 곧 자가당착에 빠진다. 원망과 자책, 환멸과 기대, 절망과 극복의 의지가 끊임없는 상호부정 속에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에, 연민을 느끼는 독자는 마리안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

1669년의 대성공 이후 『편지』의 “역사”<sup>1)</sup>는 길고 복잡하지만, 모든 논쟁은 출판 직후의 한 비평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해 가브리엘 게레(Gabriel Guéret)가 작성한 문학비평 『생-클루 산책』(*La promenade de Saint-Cloud*)에서, 세 명의 대화자 오롱트(Oronte), 클레앙트(Cléante), 그리고 저자 자신을 대변하는 필랑트(Philante)는 장안의 화제인 『편지』의 가치에 대해 논한다.<sup>2)</sup> 오롱트에게 『편지』가 성공한 이유는 수녀의 연애편지라는 주제의 선정성 이상이 아닌데, 이에

1) 이에 대한 기초자료는 우선 프레데릭 들로프르(Frédéric Deloffre)와 자크 루조(Jacques Rougeot)가 그들이 편집한 『편지』 판본에 포함시킨 해설 “『포르투갈 수녀의 편지』의 역사”(L’histoire des *Lettres portugaises*)다. Frédéric Deloffre and Jacques Rougeot (1972), “L’histoire des *Lettres portugaises*”, Guilleragues, *Chansons et bons mots. Valentins. Lettres portugaises* (ed. by Frédéric Deloffre and Jacques Rougeot), Genève: Droz/Paris: Minard, pp. 61-93. 하지만 이들의 관점이 『편지』를 기유라그의 문학적 창작으로 규정하기 위한 의지에 물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금 더 객관적인 최근의 문헌으로는 효율적이기까지 한 마르크 에스콜라(Marc Escola)의 정리가 있다. 이 글은 프랑스의 문학연구 웹진 『파블라』(*fabula*)에 게시되었다. Marc Escola (2007), “L’auteur comme fiction”, *fabula*, 2021.06.01. 한국어 연구로는 텍스트의 쟁점을 두루 검토하는 이윤수의 작업을 참고할 수 있다. 이윤수(2017), 「기유라그의 『포르투갈 수녀의 편지들 *Lettres portugaises*』(1669)에 나타난 자아표출의 양상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2, pp. 215-246. [http://www.fabula.org/atelier.php?L%27auteur\\_comme\\_fiction\\_%3A\\_Guilleragues](http://www.fabula.org/atelier.php?L%27auteur_comme_fiction_%3A_Guilleragues).

2) Gabriel Guéret (1888), *La promenade de Saint-Cloud* (ed. by Georges Monval), Paris: Librairie des Bibliophiles, pp. 35-38.

반해 클레앙트는 텍스트의 풍부한 “다정함”(tendresse)만으로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편지』의 가치를 인정한다. 필랑트는 클레앙트를 비판하면서, 『편지』의 “감정”(sentiment)은 진부한 데다가 그것을 표현하는 “문체”(style)마저 형식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중언부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편지』의 문학적 가치와 관련된 쟁점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토로처럼 보이는 텍스트의 평가하는 원리다. 이런 감정의 토로는 텍스트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가치를 가지는가? 혹은 그것이 문학적 가치를 가지려면 정제된 관념과 형식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편지』가 실제 편지의 번역이라고 믿고 수녀와 장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애썼다. 심지어 19세기에는 “마리안느”의 본명이 “마리안나 알코포라다”(Mariana Alcoforada)라고 믿는 “알코포라디스트”(alcoforadistes)들이 포르투갈문학사를 정립하려는 민족주의와 협력한다. 이들에게 감정의 자연스러움은 텍스트가 허구가 아니라는 증거다.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 감정과 문체의 자연스러움은 『편지』가 17세기 프랑스문학의 걸작이라는 증거였다. 이들은 감정과 문체의 정제를 요구하는 필랑트의 비판이 역으로 『편지』의 문학사적 지위를 입증한다고 판단한다. 『편지』는 관념에서나 형식에서나 절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고전주의 문학을 극복하며, 18세기의 대표적 장르가 될 서간체 소설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텍스트의 저자와 텍스트 생산의 정황을 상세하게 밝히는 일이다.

20세기 중반의 두 문학사가 들로프르와 루조는 치밀하고 집요한 조사를 통해 문학사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기유라그(Guilleragues) 백작을 『편지』라는 “걸작”의 저자로 확정하였다.<sup>3)</sup> 그렇다고 해서 『편지』의

3) 『편지』를 문학사의 “걸작”으로 확인하려고 한 들로프르와 루조는 가장 권위 있는 판본을 편집했으며, 거기에 『편지』의 이해를 위한 해설과 자료를 다수 수록해 두었다. Guilleragues (1972), *Chansons et bons mots. Valentins. Lettres portugaises* (ed. by Frédéric Deloffre and Jacques Rougeot), Genève: Droz/Paris: Minard. 이하 『편지』 인용은 본 판본을 사용하며, “*Lettres portugaises*”와 쪽수로 표기한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자, 감정, 형식 등의 요소와 문학적 가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현대비평 안에서 『편지』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몰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이후 여성주의 비평의 논쟁이다.<sup>4)</sup> 이 논쟁에서 『편지』의 여성인 척하는 남성작가, 그에 의해 재현되는 여성의 혼란스러운 감정, 그것을 위해 고안된 의도적으로 반고전주의적인 문체는 여성적 글쓰기를 규정하고 발굴하려는 비평가들에게 많은 고민과 자원을 동시에 제공해주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재차 확인할 수 있듯이, 『편지』의 자연스러움 혹은 자연스럽다고 인식되는 불규칙성과 비정형성은 그것이 이성의 세기 한복판에 출현하여 합리주의적 세계와 맞섰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모든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잠재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편지』에는 비이성적인 상태의 주체가 있고, 그는 비이성적인 언어를 말한다. 광기가 『편지』의 중요한 요소임은 이미 충분히 지적되었다. “그토록 반복되는 광기의 주제가 내적 현기증의 감정에 결부되어야 한다.”<sup>5)</sup> 심지어 한 비평가는 화자의 분열된 정체성을 고안한 것에

- 
- 4)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Peggy Kamuf (1980), “Writing like a Woman”, *Women and Language in Literature and Society* (ed. by Sally McConnell-Ginet, Ruth Borker and Nelly Furman, New York: Praeger, pp. 284-299. Susan Lee Carrell (1982), “Chapitre II: les “Lettres portugaises””, *Le Soliloque de la passion féminine, ou le dialogue illusoire: étude d’une formule monophoniqu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Tübingen: G. Narr/Paris: J.-M. Place, pp. 39-53. Claire Goldstein (1997), “Love Letters: Discourses of Gender and Writing in the Criticism of the *Lettres portugaises*”, *Romanic Review* 88.4, pp. 571-590. Mary McAlpin (1999), “Poststructuralist Feminism and the Imaginary Woman Writer: the *Lettres portugaises*”, *Romanic Review* 90.1, pp. 27-44. Thérèse Lassalle (2004), ““La Femme rompue”. À propos de Mariane dans les *Lettres portugaises*”, *Des femmes: images et écritures* (ed. by Andrée Mansau), Toulouse: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pp. 49-59.
- 5) Jean-Michel Racault (1984), “Un roman aux limites du roman: le soliloque de la passion dans les *Lettres de la religieuse portugaise*”, *Visages de la féminité* (ed. by Université de la Réunion) Paris: Didier Érudition, p. 108.

서 작품의 독창성을 찾는다.<sup>6)</sup> 누군가는 내용과 형식이 일치되어 있다고 너무나 쉽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체와 언어에 일관된 문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편지』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문체를 강조하는 모든 비평은 내적 긴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관건은 이 내적 긴장을 상대화하고 객관화하는 것이겠다.

## 2. 독백인가 대화인가: 문학으로서 『편지』의 해석사

『편지』의 저자 그리고 문학으로서의 지위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세기 중반에서야 결정된다. F. C. 그린(F. C. Green),<sup>7)</sup> 레오 스피처(Leo Spitzer),<sup>8)</sup> 프레데릭 들로프르와 자크 루조가 이 발굴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들이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비평가들은 절망적인 정념의 운동을 표현하는 모순적 문체가 정확히 어떤 문학사적 위치와 의미를 갖는지 자문하기 시작한다. 앞서 언급한 여성주의 비평 또한 이 큰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먼저 『편지』의 특성을 과거 혹은 당대의 문학전통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수많은 원천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지』의 수사학적이고 문체적인 개성은 신비주의<sup>9)</sup>와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sup>10)</sup>

---

6) Jonathan Mallinson (1999), “Writing Wrongs: *Lettres portugaises* and the Search for an Identity”, *Writers and Heroines: Essays on Women in French Literature* (ed. by Shirley Jones Day), Berne: Peter Lang, pp. 31-47.

7) F. C. Green (1926), “Who was the author of the *Lettres portugaises*”, *Modern Language Review* 21.2, pp. 159-167.

8) Leo Spitzer (1954), “*Les Lettres portugaises*”, *Romanische Forschungen* 65, pp. 94-135.

9) Volker Schröder (2002), “Les méditations de Mariane: la matrice mystique des *Lettres*

등의 전통과 연결된다. 좀 더 가깝게는 기유라그가 드나들었던 “우아한 상류사회”(société raffinée)의 구성과 성격을 조사할 수 있다.<sup>11)</sup> 이것은 사교계가 17세기 문학의 생산조건이었으며, 따라서 문학은 일종의 집단창작의 대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까닭으로 당시 사교계에서 유행하던 “감상적 시”(poésie sentimentale)가 기유라그의 문학적 기교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sup>12)</sup> 또한 특정 장르를 포함해 17세기 중반 문학계에서 개발되고 있던 “자연스러움”(le naturel)의 미학을 『편지』의 수사학적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sup>13)</sup> 이 연구들은 사실의 차원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영향관계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편지』의 감정과 문체는 고전주의적 균형과 절제의 반대편에 있는 “자연스러움”의 미학 안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앙리 쿨레(Henri Coulet)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편지』가 과거 혹은 당대의 문학적 전통과 맺는 관계는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으며, 그가 보기에 『편지』의 문학사적 가치는 혼란에 빠진 주체의 “체

---

*portugaises*”, *La femme au XVIIIe siècle* (ed. by Richard G. Hodgson), Tübingen: Gunter Narr, pp. 283-299.

- 10) Gabrielle Verdier (1982), “Remarques sur le style et la rhétorique des *Lettres portugaises*”, *Actes de New Orleans* (ed. by Francis L. Lawrence), Paris/Seattle/Tuebingen: PFSCS, pp. 87-96.
- 11) Frédéric Deloffre (1961), “Le problème des *Lettres portugaises* et l’analyse stylistique”, *Langue et littérature. Actes du XVIIIe congrès de l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langues et littérature modernes*, Paris: Les Belles Lettres, pp. 282-283. Frédéric Deloffre and Jacques Rougeot (1968), “Les *Lettres portugaises*, miracle d’amour ou miracle de culture”, *Cahier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études françaises* 20, pp. 19-37.
- 12) Jacques Chupeau (1969), “Remarques sur la genèse des *Lettres portugaises*”, *Revue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69, pp. 506-524.
- 13) Jean-Michel Pelous (1977), “Une héroïne romanesque entre le naturel et la rhétorique: le langage des passions dans les *Lettres portugaises*”, *Revue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77.3-4, pp. 554-563.

힘된 지속”(durée vécue)을 재현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sup>14)</sup> “실제로 『포르투갈 수녀의 편지』의 특성은 무질서다.”<sup>15)</sup> 감정은 통제되지 않고, 표현은 체험의 즉각적 반영이며, 모든 것은 충격효과와 연쇄다. 쿨레는 『편지』의 “무질서”가 기존의 고전주의적 세계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그것이 유발한 새로운 문학적 방법론의 전개를 추적하는 편이 더 유익할 것임을 암시한다.

『편지』로부터 어떤 문학사를 구축할 것인가? 장 루세(Jean Rousset)는 한 수녀의 분열적 독백에서 1인칭소설 장르의 발생을 보려고 한다. 『편지』가 서간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해도, 그 실체는 “대화 없는 혼잣말”(soliloque sans dialogue)에 사로잡힌 감정이다.<sup>16)</sup> 같은 관점에서, 장-미셸 플루(Jean-Michel Pelous)는 『편지』가 문체나 사랑의 관념에서 17세기의 “갈랑트리”(galanterie) 전통과 단절하고 있음을 관찰한다.<sup>17)</sup> 결국 두 연구자에게 『편지』의 가장 큰 의미는 문학에서 고전주의적 감정과 언어의 특징인 사회성을 소거했다는 데 있다. 무질서한 감정과 문체는 바로 이 사회성 부재의 한 효과로 이해된다.

이 평가에 동의하게 되면, 18세기에 번성할 장르인 서간체소설의 역사에서 『편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루세는 물론이고 서간체소설 장르를 조사한 여러 연구자들은, 장르의 첫 성공작임에도 불구하고 서간체소설로서 『편지』의 미학적 성취에는 소극적이다.<sup>18)</sup>

14) Henri Coulet (2003), “Les *Lettres portugaises* et le roman épistolaire”, *Le roman jusqu’à la Révolution*, Paris: A. Colin, pp. 208-221.

15) Henri Coulet (2003), p. 213.

16) Jean Rousset (1972), “Du monologue narratif aux *Lettres portugaises*”, *Narcisse romancier. Essai sur la première personne dans le roman*, Paris: José Corti, p. 65.

17) Jean-Michel Pelous (1982), “La figure de l’amant dans les *Lettres portugaises*: vers une nouvelle définition des valeurs amoureuses”,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20.2, 1982, pp. 79-85.

18) Jean Rousset (1962), “Une forme littéraire: le roman par lettres”, *Forme et signification*.



『편지』가 서간문 언어의 특징인 자연스러움이나 즉각성, 진실성의 환상을 문학에 도입하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독백인 작품이 상호주관성의 문학인 서간체소설 장르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잔 리 카렐(Susan Lee Carrell)은 가장 적극적이다. 차라리 그는 대화의 외양을 가진 독백의 장르사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 여성적 장르에서 『편지』의 글쓰기는 상호주관적 서간문의 “적극적 양태”(mode actif)가 아닌 “독백의 서간체 형태인 반성적 양태”(mode réfléchi)로 규정된다.<sup>19)</sup>

독백인가 대화인가? 『편지』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논쟁 하나가 바로 이 복합적 질문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첫 번째 편지를 여는 돈호법의 대상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Considère, mon amour, jusqu'à quel excès tu as manqué de prévoyance. Ah ! malheureux ! tu as été trahi, et tu m'as trahie par des espérances trompeuses. Une passion sur laquelle tu avais fait tant de projets de plaisirs, ne te cause présentement qu'un mortel désespoir, qui ne peut être comparé qu'à la cruauté de l'absence qui le cause.

내 사랑아, 너에게 얼마나 선견지명이 부족했는지 생각해보아라. 아! 불운한 것! 너는 거짓 희망에 배신당했고, 그것으로 나를

---

*Essais sur les structures littéraires du Corneille à Claudel*, Paris: José Corti, pp. 65-108. Laurent Versini (1979), *Le roman épistolaire*, Paris: PUF, p. 47. François Jost (1968), “L'évolution d'un genre: le roman épistolaire dans les lettres occidentales”, *Essais de littérature comparée. II. Europaena, première partie*,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pp. 144-152.

19) Susan Lee Carrell (1982), pp. 41-42. 이에 대한 역사적 보충으로서, 장-필립 보리외(Jean-Philippe Beaulieu)는 『편지』의 이런 “양태”가 당시 실제 편지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Jean-Philippe Beaulieu (1990), “Le statut des *Lettres portugaises* dans les formes épistolaires du XVII<sup>e</sup> siècle”, *Orbis Litterarum* 45, pp. 330-340.

배신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쾌락의 계획을 세우도록 한 정념이 지금 너에게는 치명적인 절망만을 야기하는구나. 이 절망은 오직 그것을 야기하는 부재의 잔인함에만 견줄 수 있는 것이니.<sup>20)</sup>

여기에서 “너”(tu) 즉 “내 사랑”(mon amour)은 마리안느 자신의 정념인가, 그녀를 버리고 떠난 연인인가? 어떤 연구자들은 텍스트 내적 분석과 수사학의 역사를 종합하여 이 돈호법을 사회적 발화가 아닌 내면적 운동으로 보고, 그리하여 『편지』가 처음부터 일관된 독백의 양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sup>21)</sup> 그리고 앞서 언급한, 『편지』의 서간체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축소시키는 비평가들은 이 해석에 동조하며, 작품의 현대적 의미를 순수한 내면의 운동을 표현했다는 것에서 찾는다. 『편지』의 문학사적 가치는 18세기를 뛰어넘어 곧장 19세기와 20세기를 향한다.

레오 슈피처와 끈질기게 저항하는 들로프르와 루조가 있기에, 반대파는 비교적 소수라 해도 약하지 않다. 이들은 서간문으로서 『편지』의 기본적인 상호주관성을 인정하고, 수녀의 독백 혹은 자기반성성이 어디까지나 이런 상호주관적 토대 위에서 기능한다고 본다. 문제가 되는 돈호법은 그를 버리고 떠난 프랑스인 장교를 향한 것이며, 이것은 마리안느의 글쓰기가 상식적인 편지의 논리에서 시작한다는 증거다. 이 사회적 발화는 응답의 부재로 곧 실패하고 마리안느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다. 하지만 편지라는 상상적 공간 안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극복의 의지를 통해 세계와 화해하려 한다. 따라서 사회적 공간 안에서 주관적 공간을 발견하는 과정이 『편지』의 서사적 구조이

20) *Lettres portugaises*, p. 147.

21) 대표적으로 볼프강 라이너(Wolfgang Leiner)의 두 연구를 보라. Wolfgang Leiner (1965), “Vers une nouvelle interprétation des *Lettres portugaises*: Mariane entre son amour et son amant”, *Romanische Forschungen* 77, pp. 64-74. Wolfgang Leiner (1966), “De nouvelles considérations sur l’apostrophe initiale des *Lettres portugaises*”, *Romanische Forschungen* 78, pp. 548-566.

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편지』의 미학은 이해될 수 없다. 들로프르와 루조는 문학적 분석은 물론이고 기유라그에 대한 실증적 사실과 당대 문학의 수사학적 관습을 수집하여 이 주장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정당화를 제공한다.<sup>22)</sup>

이 해석은 『편지』가 고전주의 문학의 산물임을 확인하고, 그런 한에서 작품을 이후 18세기 문학과 연결한다. 이와 같은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 쟁점이 가진 복합성까지 보여주는 것은 역사적 조사를 괄호 안에 넣고 텍스트의 구조와 문체에 집중하는 슈피처의 연구다. 그가 보기에 『편지』는 고전주의의 합리성에서 일탈하는, “불행한 정념의 헛되이 작동하는 지성적 작업”<sup>23)</sup>을 보여준다. 마리안느는 응답 없는 대상에게 쓰다가 치쳐 객관성의 기초인 외부세계에 대한 인지능력까지 상실한다. 그런데 슈피처가 “심리적 보속증”(persévération psychologique)<sup>24)</sup>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의해, 마리안느는 수신자 없이 쓰는 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과 글쓰기를 대상화하게 된다. 편지5의 한 문장이 시사적이다. “나는 당신이 내 정념보다 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sup>25)</sup> 그가 자신의 정념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연민하고 반성하자, 상실되었던 세계가 복귀한다. 마리안느는 스스로 이성을 회복한다. 슈피처에게 『편지』는 불행에 빠진 주체가 합리적 세

22) Frédéric Deloffre (1991), “La rhétorique des *Lettres portugaises*”, *Le langage littéraire au XVIIe siècle: de la rhétorique à la littérature*, (ed. by Christian Wentzlaff-Eggebert), Tübingen: G. Narr, pp. 147-152. Frédéric Deloffre (1991), “Guilleragues et les *Lettres portugaises*, ou de l’œuvre à l’auteur”, *Littératures classiques* 15, pp. 259-270. Frédéric Deloffre and Jacques Rougeot (1993), “Les *Lettres portugaises*, exercice rhétorique ou dialogue avec une ombre ?”, *Parcours et rencontres. Mélanges de langue, d’histoire et de littérature françaises offerts à Enea Balmas* t. 1, Paris: Klincksieck, pp. 835-861.

23) Leo Spitzer (1954), p. 96.

24) Leo Spitzer (1954), p. 105.

25) *Lettres portugaises*, p. 170.

계에서 벗어났다가 복귀하는 이야기다.

수녀의 편지는 사회적 공간에서 상상적 공간으로 성격을 바꾸며, 우선은 이것이 마리안느가 품고 발화하는 감정과 언어의 비이성적 악화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편지』에는 이 악화를 통제하고 마리안느를 다시 세계로 복귀시키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첫째, 텍스트는 고전주의 비극의 5막 구조를 차용하면서 편지의 상상적 공간에 합리적 형식을 부여한다. 둘째, 마리안느가 세계를 부정하고 이를 통해 정념을 정화함으로써 다시 세계를 되찾는 과정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방법론적 회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결국 마지막 편지에서 마리안느의 내면과 글쓰기는 “명백히 데카르트적인 관대한 명석함, 그리고 전낭만주의를 예고한다 해도 결국 프랑스 고전주의의 고상하게 문학적인 산문을 상기시키는 언어”<sup>26)</sup>에 이른다.

슈피처의 해석은 『편지』의 광기를 방법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작품을 그것을 낳은 시대의 정당한 생산물로 취급한다. 마리안느의 광기는 고전주의의 합리적 세계로 돌아오기 위한 도구다. 그런데 이 회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편지의 반사회성, 즉 사회적 조건 아래 있긴 해도 주체를 상상적 공간에 위치시키는 편지의 주관성이다. 마리안느는 편지가 독백임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이성을 회복한다. 따라서 대화로서 편지의 사회성의 환상에 대한 비판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슈피처의 『편지』는 이미 서간체소설의 복잡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단지 고전주의적 세계를 복귀하는 이야기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이 논쟁에는 『편지』의 문학사적 위치와 비이성적 요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동시에 포함돼 있다. 두 진영 중 전자의 주장에 따라 『편지』의 양태를 일관된 독백으로 본다면 텍스트의 비이성적 성격은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상실한 자아의 효과가 될 것이다. 이것은 『편지』

26) *Lettres portugaises*, p. 128.

의 문학사적 가치가 서간체소설 장르의 상호주관성보다는 현대적 내면성의 언어를 발견한 것에 있음을 암시한다. 반대로 후자에 동조하여 『편지』의 양태를 독백으로 보는 것이 작품의 문학적 의미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간주하면, 수녀의 비이성적 문장들은 편지 안에서 가능한, 전략적이진 않더라도 방법적인 것에 가까워진다. 이때 『편지』는 서간체소설 장르의 발생에서 더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편지』의 비이성적 특성에 얼마만큼의 진실성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함으로써 『편지』의 문학사적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편지1의 돈호법에 대한 논쟁이 결코 끝나지 않듯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편지』는 서간문이라는 형태 안에 있는 동안 논리적으로 대화와 상호주관성을 전제하지만, 오직 한 사람의 편지로만 구성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반추하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양태”는 그러한 사실을 의심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버림받은 여성의 토로에서 광기의 형상을 발견할 정도로 연민에 빠질 수 있지만, 비이성적 글쓰기라는 것이 일종의 형용모순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그런데 이 모호함이 곧 편지의 본성은 아닐까? 왜냐하면 편지란 독백만도 대화만도, 주관적 착란만도 사회적 행위만도 아닌, 언제나 이중적인 본질을 가진 형식이기 때문이다. 편지라는 역설적 매체의 본질에 대해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편지는 자유로우며 규범화되어 있고, 내밀하며 공적이고, 은밀함과 사회성 양쪽으로 끌린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와 주관성을 다른 어떤 표현보다 더 잘 연결한다.”<sup>27)</sup> 우리가 보기에 편지의 조건인 이 역설이 마리안느의 광기의 논리와 상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논쟁의 어느 한 편에 가담하기보다, 논쟁을 가능하게 한 편지의 광기를 차분히 관찰하는 편이 낫다. 슈피처의 연구는 『편지』의 독자들에게 이미 이러한 요구를 던지고 있다.

27) Roger Chartier (1991), *La correspondance, les usages de l'écrit au XIXe siècle*, Paris: Fayard, p. 9.

### 3. 『편지』: 광기의 연쇄

우리는 『편지』의 해석사를 일별하며 작품에 일관된 문학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화자의 비이성적 글쓰기를 이해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연구자들을 양분하는 쟁점 즉 『편지』가 본질적으로 독백인지 대화인지 결정하는 일을 편지라는 매체에 대한 고찰로 해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제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 해설을 통해 이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 3.1. 편지1: 편지의 이상적 논리

마리안느는 이별을 통보하는 프랑스인의 편지를 받고 세 시간 동안 혼절했다 깨어난다. 하지만 그는 남성의 뜻을 거부하고, 사랑이 관념적인 형태로나마 계속될 것을 원한다. 마리안느는 편지를 요구한다.

편지의 전반부와 중반부가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채워져 있긴 해도, 이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어조가 아님이 밝혀진다. 신음과 한탄은 편지를 통해 사랑을 연장하려는 노력이다. 마리안느는 남성의 부재가 유발한 절망에 힘겨워 하지만, 이 감정이 그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동시에 멀리 있는 대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군말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sup>28)</sup> 이 추론이 편지1의 구조를 결정한다. 먼저 고통이 전시되고, 다음에 그 고통을 이용하여 편지 교환의 정당성이 주장된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마리안느가 더 많은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는 그것만이 편지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해주세요.”<sup>29)</sup>

28) *Lettres portugaises*, p. 149.

29) *Lettres portugaises*, p. 150.

조건은 편지를 통해서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수녀는 편지에 갇혀 있다. 하지만 편지1에서 이 고독은 아직 절대적이지도 결정적이지도 않다. 절대적이지 않은 까닭은 여전히 감정과 기억 속에서 마리안느는 남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결정적이지 않은 까닭은 설사 당분간 재회가 불가능할지라도 편지의 기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만나고 있을 다른 여성들, 편지를 가져갈 마리안느의 형제가 응성거리는 이 편지는 적막한 수녀원이 아니라 정님이 유통되는 사교계의 형상을 띄고 있다. 편지1의 이러한 어조를 관찰한 후에야 편지의 마지막 문단이 품은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Adieu, je ne puis quitter ce papier, il tombera entre vos mains, je voudrais bien avoir le même bonheur: hélas! *insensée* que je suis, je m'aperçois bien que cela n'est pas possible. Adieu, je n'en puis plus. Adieu, aimez-moi toujours; et faites-moi souffrir encore plus de maux.

안녕히, 나는 이 종잇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두 손에 놓이겠지요, 나도 같은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히, 더는 못 쓰겠어요. 안녕히, 계속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해주세요.<sup>30)</sup>

세 번 반복되는 “안녕히”(adieu)는 편지쓰기의 끝을 지시하는 동시에, 주체와 편지의 분리(“quitter”)를 예고한다. 편지를 다 쓰면 편지를 떠나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마리안느가 편지를 떠나는 일과 편지가 남자의 손에 놓이는 일이 선표 하나로 연결된다. 이 연결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의 차원에서 그것은 단순한 선후관계다. 편지

30) *Lettres portugaises*, p. 150. 본 인용을 포함하여 이후 모든 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이다.

가 남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마리안느가 편지를 떠나보내야 한다. 하지만 다시 씌표 하나로 마리안느가 편지의 “행복”을 공유하길 희망하는 문장이 이어지면, 씌표들이 선후관계의 표지가 아님이 분명해진다. 두 개의 씌표로 연결되는 세 문장은 편지의 가능성을 추론하는 삼단 논법이다. 발신자가 편지와 분리되어야, 편지가 수신자와 포용할 수 있고, 그래야만 발신자가 매체의 쾌락을 공유할 수 있다. 이 삼단 논법은 편지의 이상적 논리를 기술한다. 매체는 발신자와 분리되지만 그 즉시 발신자의 화신이 되는데, 그것은 수신자와 매체의 접촉이 두 주체의 육체적 접촉을 대체할 정도로 강력하다. 편지를 보내며, 마리안느는 그에게 안긴다. 이것은 현실의 논리가 아니라, 편지를 쓰는 의식 안에서만 상상되는 특수한 논리다.

비현실적인 이 논리는 따라서 주체의 “정신이 나간”(insensée) 상태를 반영한다. 편지1의 광기는 편지의 논리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이런 맥락에서 반복되는 “안녕히”는 절망이 아니라 기대의 표지다. 두 번째 “안녕히” 다음에 나오는 “더는 못 쓰겠어요”는 편지를 통한 육체적 접촉의 조건을 지시할 뿐이다. 그것은 마지막 “안녕히”에 뒤따르는 사랑의 요구로 이어진다. 이때 사랑의 요구란, 자신을 잊지 말라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애무하고 답장을 통해 수녀원에 은밀히 방문해달라는 유혹이다. “종잇장”이 육체를 대신한다. 마지막 문장은 이 상상적 육체의 애무가 가능할 조건으로서 부재를 긍정한다. 마리안느는 사랑받기 위해 더 큰 고통을 원한다.

### 3.2. 편지2: 이상적 논리의 악화

편지2에서 마리안느는 반년 동안이나 답장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편지1이 공식화한 편지의 이상형은 폐기될 위협에 처한다. 수신자의 손이 편지를 어루만지고 그의 시선이 그것을 쓰다듬었다는 사실이 확



인되지 않으면 편지의 논리는 불안에 사로잡힌다. 편지2는 편지1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재조직하면서 기대가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첫 문장이 편지를 통한 소통의 불확실성을 선언하는 것은 시사적이다. “내 마음의 감정을 쓰면서 그것을 당신에게 알리려고 시도함으로써 나는 이 감정에게 비할 데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sup>31)</sup> 편지의 상상적 논리로부터 환멸이 발생한다. 모든 요소에서 불안이 희망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과거의 기쁨은 절망을 더할 뿐이고, 미래의 기대는 떠오르지 않는다.

새로운 처방들이 강구된다. 그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잇는 것이지만, 마리안느가 이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여전히 사랑의 환상에 매달려 있음을 입증한다. 대신 그가 택한 방법은 남성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동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마리안느의 환멸을 보상하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수녀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L'on m'a fait depuis peu portière en ce couvent; tous ceux qui me parlent croient que je suis *folle*, je ne sais ce que je leur répons, et il faut que les religieuses soient aussi *insensées* que moi, pour m'avoir crue capable de quelque soin. Ah! j'envie le bonheur d'Emmanuel et de Francisque, pourquoi ne suis-je pas incessamment avec vous, comme eux?

얼마 전부터 수녀원의 문지기를 맡게 됐어요; 내게 말하는 모든 이들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다니, 수녀들이 나만큼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요. 아! 엠마누엘과 프란시스코의 행복이 부럽습니다, 왜 나는 그들처럼, 당신과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인가요?<sup>32)</sup>

31) *Lettres portugaises*, p. 151.

이 단락을 인용한 것은 광기의 주제가 등장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또한 편지1의 이상적 논리가 악화된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마리안느는 다시 한 번 광기의 주체가 되지만, 이 광기는 이제 상상적 쾌락의 표현이 아니라 수녀원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다. 이 광기로 인해 그녀는 온전히 편지 안에 있지도 못하고 현실 안에 있지도 못한다. 광기의 주체가 자신을 판단하는 외부 시선에 광기의 이미지(“정신이 나간”)를 돌려주는 것은 상상적 공간과 현실적 공간의 대립을 보여줄 뿐이다. 한편 편지1에서 주체와 대상의 접촉을 매개했던 편지지의 순수한 존재가, 여기에서는 편지를 배달하는 하인들의 이름으로 대체된다. 마리안느는 이들과 수신자의 만남을 여전히 부러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마리안느 대신 수신자와 사랑을 나눌 수는 없다. 매개의 논리는 훼손되었다.

가장 중대한 악화는 고통의 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리안느는 자신이 사랑 때문에 희생한 것들을 나열하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편지의 가능성을 위해 동원되지 않는다. 마리안느는 계속 아프다고 말할 뿐이다. “당신이 떠난 후로, 나는 단 한 순간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sup>33)</sup> 이어서 고통이 심화된다. 마리안느는 자신을 방에 가둔다. 수녀들이 그를 위로하지만, 그들은 마리안느가 자신을 가둔 수녀원 안에 작은 상상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나는 방에서 가능한 한 나오지 않아요, 당신이 그토록 많이 왔던 이곳에서 나는 당신의 초상화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sup>34)</sup>

편지의 마지막은 마리안느의 내면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32) *Lettres portugaises*, p. 153.

33) *Lettres portugaises*, p. 154.

34) *Lettres portugaises*, p. 154.

M'avez-vous pour toujours abandonnée? Je suis au désespoir, votre pauvre Marianne n'en peut plus, elle s'évanouit en finissant cette lettre. Adieu, adieu, ayez pitié de moi.

당신은 나를 영영 버렸나요? 나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불쌍한 마리안느는 더는 못 쓰겠어요, 그녀는 이 편지를 끝내며 사라집니다. 안녕히, 안녕히, 나에게 연민을 가져주세요.<sup>35)</sup>

편지1의 끝에서는 가상의 만남을 위해 그녀가 편지지를 떠나야 했지만, 여기에서 마리안느의 “떠나다”(quitter)는 남성의 “버리다”(abandonner)로 대체된다. 편지1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두 개의 모호한 심표가 일종의 삼단논법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삼단논법은 편지의 환상이 아니라 환멸의 상태를 추론한다. 답장의 부재가 주체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이상적 논리의 파괴가 편지쓰기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편지1과 정확히 같은 표현인 “더는 못 쓰겠어요”는 그에게 안기기 위해 편지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체의 소멸(“s'évanouir”)을 지시한다. 왜냐하면 마리안느에게 편지지를 떠나는 것은 더 이상 편지와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라져서, 그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편지에도 현실에도 있지 않다. 그는 단지 작은 방 안에, 심화되는 고독 속에 있다. 편지1과 달리 거리를 두지 않고 두 번 발화되는 “안녕히”는 전과 같이 사랑의 요구일 수 없다.

### 3.3. 편지3: 극단적 편지로서 죽음

편지2가 편지쓰기를 통한 주체화의 장애를 편지1의 요소들을 훼손하는 형태로 묘사한다면, 세 번째 편지에서 주체의 불안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 편지3은 치유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을 인정하

35) *Lettres portugaises*, p. 154.

면서 시작한다. 곧 마리안느는 상호적이지도 실제적이지도 않은 사랑의 공허함을 말하는 한편, 여전히 거기에 매달리는 자신의 혼란을 대비한다. 감정의 불확실성에 주체의 불확실성이 호응한다. 부정적인 방식이지만 마리안느 자신의 주관과 감정이 대상화되기 시작한다. 다음 공식은 편지3에서 주체의 이러한 “가없는 상태”를 축약한다.

Je ne sais, ni ce que je suis, ni ce que je fais, ni ce que je désire: je suis déchirée par mille mouvements contraires. Peut-on s’imaginer un état si déplorable?

나는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수많은 상반된 운동**<sup>36)</sup>에 의해 찢깁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가없는 상태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sup>37)</sup>

편지의 소통에 의해 주체화되었던 마리안느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주체의 위기는 무지와 분열로 구성된다. 우선 그의 존재, 행위, 욕망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또한 주체의 동일성은 모순적 운동에 의해 파괴된다. 주체의 어떤 속성도 규정될 수 없고, 규정된다 해도 그것은 모순적이다. 편지3은 바로 이 무지와 분열의 증상들을 나열한다. 그것의 가장 현저한 사례가 마리안느 자신의 생존이다.

Je vis, infidèle que je suis, et fais autant de choses pour conserver ma vie que pour la perdre. Ah! j’en meurs de honte: mon désespoir n’est donc que dans mes lettres?

나는 살아 있습니다, 불충한 것 같으니, 그리고 삶을 버리기 위

---

36) 고전주의 프랑스어에서 “mouvements”은 ‘운동’ 외에도 감정의 ‘변화’, ‘격정’, ‘혼란’ 등을 흔히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어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함축을 간직하고자 ‘운동’을 택한다.

37) *Lettres portugaises*, p. 156.

해서 하는 것만큼이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렇다면 내 절망은 오직 편지 안에만 있는 것일까요?<sup>38)</sup>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주체가 어떻게 사랑을 잃고도 계속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편지를 쓰는 마리안느는 이 역설에 삶과 말 혹은 삶과 편지의 소외의 문제가 함축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그의 “불충”(infidèle)은 사랑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편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주체는 편지의 이상적 논리를 벗어나서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상대화한다.

이 모든 모순을 끝내는 방법은 죽는 것이고, 죽어서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이다. 죽음의 이미지와 요구는 편지<sup>3)</sup>의 일관된 주제다. 그리고 삶과 편지의 연관 하에서, 죽음은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불가능해진 편지의 논리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Et je vous conjure de me donner ce secours, afin que je surmonte la faiblesse de mon sexe, et que je finisse toutes mes irrésolutions par un véritable désespoir; une fin tragique vous obligerait sans doute à penser souvent à moi, ma mémoire vous serait chère, et vous seriez, peut-être, sensiblement touché d'une mort extraordinaire: [...]

그러니 내게 이 수단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래야 내가 여성의 약함을 극복하여 진정한 절망으로 내 우유부단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비극적 결말로 인해 아마도 당신은 나를 종종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나에 대한 기억은 당신에게 소중한게 될 것이며, 어쩌면 특이한 죽은 여자가 당신에게 닿는 것을 느끼게 될지 몰라요: [...]<sup>39)</sup>

38) *Lettres portugaises*, p. 157.

39) *Lettres portugaises*, p. 158.

즉 죽음은 내면의 모든 모순이 수렴하는 결말일 뿐만 아니라, 편지를 대신하여 부재를 극복하게 해주고 주체가 대상과 접촉할 수 있게 (“sensiblement touché”) 해주는 장치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편지의 극단적 형태다. 편지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부재를 적절히 조정하여 주관적 환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면, 죽음은 두 주체 사이의 거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환상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편지가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을 때 위기에 빠지는 것과 달리, 절대적 부재에 근거하는 죽음의 환상은 이러한 위험에서 면제된다. 우리는 죽은 자에게는 편지를 쓰지 않고 직접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편지3에서 죽음의 요구는 진정한 체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과의 접촉을 완성하려는 시도다. 심지어 마리안느는 편지의 논리조차 완전히 체념하고 있지 않다. 그는 그냥 죽겠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서 죽음을 명령해 달라고(“내게 이 수단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요구하고 있다. 수녀는 죽음의 환상을 진술하는 바로 그 순간 답장 한 통을 원한다. 이와 같이 죽음의 요구를 포함하여 편지3의 모순들은 남성의 답장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마리안느가 “수많은 상반된 운동”에 의해 분열되어 비이성적 “상태”에 빠진다면, 그것은 가능한 모든 답장의 선택지를 장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체는 편지의 광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한다. 편지3의 결말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Adieu encore une fois, je vous écris ces lettres trop longues, je n’ai pas assez d’égard pour vous, je vous en demande pardon, et j’ose espérer que vous aurez quelque indulgence pour une pauvre *insensée*, qui ne l’était pas, comme vous savez, avant qu’elle vous aimât. […] Adieu, ma passion augmente à chaque moment. Ah! que j’ai de choses à vous dire!

한 번 더 안녕히, 나는 당신에게 너무 긴 편지들을 쓰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네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감히 희망하건대 아시다시피,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정신 나간 불쌍한 여자를 너그러이 봐주세요. [...] 안녕히, 내 정념은 매 순간 증가합니다. 아! 당신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네요!<sup>40)</sup>

### 3.4. 편지4: 자신만을 위한 편지

편지의 이상적 환상, 이러한 환상의 불안, 극단적 대응으로서 죽음의 충동.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고, 일방적 편지쓰기는 그 기묘한 절망과 매혹을 축적한다. 네 번째 편지는 가중되는 마리안느의 불만과 혼란을 감정과 사유의 더 길고 복잡한 방향으로 묘사하지만, 앞선 편지들이 그랬듯이 이 편지 또한 자신만의 편지쓰기 방식을, 특수한 비이성적 논리를 발견할 것이다. 이 논리는 편지를 대화에서 독백으로 전환함으로써 실행된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가 아니기 위해 소거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전체다. 편지4의 광기의 형상이 우선 외부세계의 부정인 까닭이 이것이다.

Je vois bien que je vous aime comme une *folle*: cependant je ne me plains point de toute la violence des mouvements de mon cœur, je m'accoutume à ses persécutions, et je ne pourrais vivre sans un plaisir que je découvre, et dont je jouis en vous aimant au milieu de mille douleurs: mais je suis sans cesse persécutée avec un extrême désagrément par la haine et par le dégoût que j'ai pour toutes choses; ma famille, mes amis et ce couvent me sont insupportables; tout ce

40) *Lettres portugaises*, pp. 158-159.

que je suis obligée de voir, et tout ce qu'il faut que je fasse de toute nécessité, m'est odieux [...]

나는 내가 당신을 마치 **광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나는 내 마음 속 운동의 모든 폭력을 결코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 학대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고통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와중에 발견하고, 향유하는 쾌락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해 품는 증오와 혐오에 의해 극도로 불쾌하게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이 수녀원을 나는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보아야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역겹습니다 [...]<sup>41)</sup>

마리안느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미치광이로 규정하지만, 곧장 광기의 의미를 변경한다. 주체의 광기가 위험이 되는 것은 “마음 속 운동의 모든 폭력”때문은 아니다. 고통의 지속은 역치를 증가시키고, 고통의 범람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쾌락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광기의 의미는 다른 데 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겹(“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이 수녀원”)을 세어가며 사회적 관계들을 해체한다. 그리고 감각과 행위의 모든 대상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와 세계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이제 마리안느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고독하다고 믿는 광인이다.

사회의 부정과 고독의 절대화가 편지의 논리를 무엇으로 변형시키는지 기술하기 전에, 편지4는 세계에서 격리된 주체가 수녀원과 자신의 방을 외로운 환상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 비워진 세계는 주체가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정념의 잔여물로 채워진다. 수녀원 곳곳에 스며있는 연인의 추억, 그리고 곧 연인과 관련된 물건들로 가득할 방. 세계를 포기함으로써 소통을 포기한 마리안느는 이

41) *Lettres portugaises*, p. 163.



제 편지를 쓰지 않고 그저 기억과 물신 안으로 도피하게 될 것인가? 마리안느의 혼란스러운 행동과 말은 그런 염려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탈사회화의 효과는 그것이 편지의 논리에 가하는 작용이 밝혀지는 편지 마지막 단락에 가서야 결정된다.

L'officier qui doit vous porter cette lettre me mande pour la quatrième fois qu'il veut partir; qu'il est pressant! il abandonne sans doute quelque malheureuse en ce pays. Adieu, j'ai plus de peine à finir ma lettre, que vous n'en avez eu à me quitter, peut-être, pour toujours. [...] Vous ne m'écrivez point, je n'ai pu m'empêcher de vous dire encore cela; je vais recommencer, et l'officier partira; qu'importe qu'il parte, j'écris plus pour moi que pour vous, je ne cherche qu'à me soulager, aussi bien la longueur de ma lettre vous fera peur, vous ne la lirez point; qu'est-ce que j'ai fait pour être si malheureuse?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할 전령이 내게 네 번째로 통지하는 바 자신은 떠나려 하고; 급하다고요! 그는 이 나라에 불행한 여인을 버려두고 가려나 봅니다. 안녕히, 나는 편지를 끝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이만큼 힘들이지 않고, 아마도 영원히, 나를 떠났지요. [...] 당신은 편지를 쓰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그것을 계속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전령이 떠나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난 당신에게 쓴다기보다 나에게 쓰고 있어요, 나는 오직 나를 진정시키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 편지의 길이가 당신을 겁에 질리게 하겠죠, 읽지도 않을 거고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불행해져야 하나요?<sup>42)</sup>

편지를 가져가려는 사람이 재촉하는데도 마리안느는 쓰기를 그치지 않는다. 편지쓰기 완료의 어려움이 연인의 불충과 대비되고 있다는

42) *Lettres portugaises*, pp. 167-168.

점에서, 우선 이것은 마리안느의 지속되는 애정을 표현한다. 그에게는 연인에게 전할 말이 아직 너무 많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이유는 곧 반전된다. 편지를 중단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후에 실제로는 중단하고 편지를 전해야 할 텐데, 마리안느는 그러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편지를 전달할 인부는 편지 없이 떠날 것이다. 지금부터 마리안느는 더 이상 수신자를 향해 쓰지 않는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편지란 부재하는 대상을 전제하고 발신자와 수신자의 거리를 조건으로 갖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편지의 일상적 논리를 이렇게 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힘들 것이다.

편지와 그것의 여러 환상을 편력한 후에 마리안느는 편지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그러한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다. 비논리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주체가 자기 자신과의 거리,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부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것은 멀리 있고 여기 없는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을 가능성과 의무를 발견했다는 것과 같다. 편지의 세계 즉 사회적인 말로 가득한 세계에서, 이런 편지의 주체만큼 미친 사람은 없다.

### 3.5. 편지5: 쓰지 않겠다는 다짐

자신에게 쓰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쓰게 될까? 그가 자신의 감정을 반추하고 내면의 깊이를 차분히 조사한다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편지의 많은 문장들은 앞선 혼란의 동기와 주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의 환멸은 온기를 간직한 감미로운 추억으로 완화되고, 옛 연인에 대한 원망과 아직도 강렬한 기대는 어느 쪽의 우위도 없이 공존한다. 이에 따라 편지의 지위 또한 변동된다. 마리안느는 프랑스로 보내야 할 편지를 쓰는 듯하다가, 폐기해버릴 듯

하다가, 자신을 위해 간직할 것도 같다. 마리안느는 앞선 편지들의 비이성적 양상을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5의 방향은 비록 잠정적일지언정 전보다 진전된 반성과 성찰에 이르고, 마리안느는 다시 무질서에 빠지더라도 그 교훈을 간직한다. 정확히 말해 편지5의 주제는 환멸과 체념의 결과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의 결심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편지가 끝날 때까지 마리안느는 자신의 다음 감정이나 결심을 예측하지 못한다. 그는 모색하고 있다. 이 모색의 요소를 역시 자신의 감정을 대하는 태도와 편지쓰기에 대한 고찰로 나누어 일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Je suis persuadée que j'eusse senti des mouvements moins désagréables en vous aimant, tout ingrat que vous êtes, qu'en vous quittant pour toujours. J'ai éprouvé que vous m'étiez moins cher que ma passion, et j'ai eu d'étranges peines à la combattre, après que vos procédés injurieux m'ont rendu votre personne odieuse.

나는 당신을 영영 떠날 때보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사랑할 때 덜 불편한 운동을 느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정념보다 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당신이라는 사람이 혐오스러워진 후에도, 그 정념과 맞서기가 이상하게 힘들었어요.<sup>43)</sup>

이때 사랑에 대한 비극적 통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념과 대상의 분리다. 마리안느는 옛 연인에 대한 판단이 역전된 후에도 자신과 정념의 관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고 관찰한다. 그러므로 정념은 대상 혹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관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정념과 맺는 관계에 따라 변한다. 미련은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념

43) *Lettres portugaises*, p. 170.

자체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정념에 대해 마리안느가 깨닫게 된 교훈이다. 정념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주관성 비판이다.

이렇게 정념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매개하기를 그치고 주체의 깊이를 지시하게 되자, 편지에 대한 대응 또한 달라진다. 지금까지 정념이 상대방의 호응에 달린 것이었기에 편지의 가치 또한 답장의 존재에 의존했다면, 이제 마리안느의 편지쓰기는 프랑스인 장교의 답장에 종속되지 않는다. 텍스트의 가장 극적인 역전이 여기에서 관찰된다. 마리안느는 남성의 답장에 무관심한 것을 넘어, 남성에게 답장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한다.

[...] je vous conjure de ne m'écrire plus, et de m'aider à vous oublier entièrement; [...] ne vous mêlez donc point de ma conduite, vous renverseriez, sans doute, tous mes projets, de quelque manière que vous voulussiez y entrer; je ne veux point savoir le succès de cette lettre; [...]

[...] 당신에게 간청하니 더 이상 내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을 완전히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그러니 내 행동에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든, 당신은 내 모든 계획을 뒤엎을 것입니다; 나는 이 편지의 성공을 결코 알고 싶지 않습니다; [...]44)

마리안느에게 “편지의 성공”은 이제 문제가 아니다. 그는 편지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한다. 단 하나의 사례 깊은 답장이라도 그가 하려는 “모든 계획”을 파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쓴다는 것은, 아무튼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외부와의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편지의 결말은 감정과 매체를 동시에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결심을

44) *Lettres portugaises*, p. 171.

담담하지만 분명하게 서술한다.

Je connais bien que je suis encore un peu trop occupée de mes reproches et de votre infidélité, mais souvenez-vous que je me suis promise un état plus paisible, et que j'y parviendrai, ou que je prendrai contre moi quelque résolution extrême, que vous apprendrez sans beaucoup de déplaisir; mais je ne veux plus rien de vous, je suis une *folle* de redire les mêmes choses si souvent, il faut vous quitter et ne penser plus à vous, je crois même que je ne vous écrirai plus; suis-je obligée de vous rendre un compte exact de tous mes divers mouvements?

나는 내가 여전히 내 비난과 당신의 불충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음을 잘 알아요, 하지만 내가 자신에게 더 평화로운 상태를 약속했음을 기억하세요, 거기에 이르든지, 아니면 나에게 대해 극단적인 결심을 취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더라도 당신에게 큰 불쾌는 주지 않겠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토록 자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광인**입니다, 당신을 떠나야 하고 더 이상 당신을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심지어 나는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으리라 믿고 있어요; 당신에게 내 모든 여러 운동을 정확히 보고해야 할 의무라도 있나요?<sup>45)</sup>

마리안느는 다시 “떠나다”(quitter). 하지만 이 떠남의 대상은 편지지도 세상도 아닌, 환멸의 직접적인 대상이며 그와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믿었던 편지의 상상적 공간이다. 그는 다시 죽음을 약속한다. 하지만 이번 죽음은 답장을 끌어내기 위한 구실이나 협박이 아니라, 진정으로 잊겠다는 다짐의 증표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선언과 함께 편지의 논리는 완전히 파괴된다. 내면의 투명한 보고라는 편지의 이념은 더

45) *Lettres portugaises*, p. 177.

이상 마리안느에게 의무가 되지 못한다. 그는 다시, 마지막으로 자신을 미치광이로 규정한다. 이 광기는 편지의 경계에 있는 주체의 광기다. 그는 수신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편지를 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 때문이다. 앞선 모든 편지의 결말에서 반복되었던 “안녕히”(adieu)가 정작 진정한 떠남을 다짐하는 마지막 편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인사조차 여전히 수신자를 향하고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 4. 결론

우리는 『편지』의 해석사를 검토하여 텍스트의 무질서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했다. 그것은 『편지』를 독백 혹은 대화의 양태로 규정하는 것이고, 이 선택에 의해 오랫동안 문학의 자격을 의심받았던 작품의 문학사적 지위가 결정된다. 우리의 해석은 텍스트의 현실에서 대화로부터 독백으로의 이행을 관찰하고, 이 양태의 전환을 이성의 복구라는 주제로 수렴시킨 레오 슈피처의 해석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오 슈피처의 해석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했다. 첫째, 『편지』의 광기는 단일하지 않고, 따라서 그와 대립하는 이성적 상태 또한 단일하지 않다. 둘째, 『편지』의 이야기는 광기와 이성의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광기의 연쇄라는 구조를 가진다. 마리안느는 편지 다섯 통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광인으로 규정해 나간다. 셋째, 『편지』에서 광기에 대한 고찰은 단지 이성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편지라는 매체의 특수성에 대한 비판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마리안느의 광기에 대한 인식은 편지를 쓰는 주체의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 본질에 근거한다. 넷째,

따라서 『편지』의 문학사적 지위는 온전히 고전주의적으로 규정되지도 않고, 내면의 자유로운 흐름을 묘사하는 낭만주의 이후 문학적 언어와 연결되지도 않는다. 18세기 서간체소설의 한 기원으로서 『편지』는 근대적 주체와 편지라는 매체의 복잡한 관계를 간략하지만 선명한 도식화와 함께 이미 탐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지』의 문학적 의미와 문학사적 지위를 결정하는 편지의 역설적 본질을 강조하고 싶다. 편지가 사회적인 소통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관성의 투명한 고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편지가 두 주관성의 최대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 단절과 부재 속에서만 생산되는 독백이기 때문이다. 즉 편지는 독백이기에 대화가 될 수 있고, 독백인 한에서 사회적이다. 편지의 이러한 논리는 아무리 보편적이더라도 당연하지 않다. 그것은 인간사회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가능한 일종의 환상이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일종의 비이성, 광기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서간체소설이 시작되는 순간, 그러니까 문학이 편지라는 매체의 모든 복잡성을 이용하려고 결심한 순간, 이 광기가 주제화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참고문헌

### 【자 료】

- Guéret, Gabriel (1888), *La promenade de Saint-Cloud* (ed. by Georges Monval), Paris: Librairie des Bibliophiles.
- Guilleragues (1972), *Chansons et bons mots. Valentins. Lettres portugaises* (ed. by Frédéric Deloffre and Jacques Rougeot), Genève: Droz/Paris: Minard.

### 【논 저】

- 이윤수(2017), 「기유라그의 『포르투갈 수녀의 편지들 *Lettres portugaises*』(1669)에 나타난 자아표출의 양상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2, pp. 215-246.
- Beaulieu, Jean-Philippe (1990), “Le statut des *Lettres portugaises* dans les formes épistolaires du XVIIe siècle”, *Orbis Litterarum* 45, pp. 330-340.
- Carrell, Susan Lee (1982), “Chapitre II: les “*Lettres portugaises*””, *Le Soliloque de la passion féminine, ou le dialogue illusoire: étude d’une formule monophoniqu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Tübingen: G. Narr/Paris: J.-M. Place, pp. 39-53.
- Chartier, Roger (1991), *La correspondance, les usages de l’écrit au XIXe siècle*, Paris: Fayard.
- Chupeau, Jacques (1969), “Remarques sur la genèse des *Lettres portugaises*”, *Revue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69, pp. 506-524.
- Coulet, Henri (2003), “Les *Lettres portugaises* et le roman épistolaire”, *Le roman jusqu’à la Révolution*, Paris: A. Colin, pp. 208-221.
- Deloffre, Frédéric (1991a), “Guilleragues et les *Lettres portugaises*, ou de l’œuvre à l’auteur”, *Littératures classiques* 15, pp. 259-270.
- \_\_\_\_\_ (1991b), “La rhétorique des *Lettres portugaises*”, *Le langage littéraire au XVIIe siècle: de la rhétorique à la littérature*, (ed. by Christian Wentzlaff-Eggebert), Tübingen: G. Narr, pp. 147-152.
- \_\_\_\_\_ (1961), “Le problème des *Lettres portugaises* et l’analyse sty-



- listique”, *Langue et littérature. Actes du XVIIIe congrès de l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langues et littérature modernes*, Paris: Les Belles Lettres, pp. 282-283.
- Deloffre, Frédéric and Rougeot, Jacques (1993), “Les *Lettres portugaises*, exercice rhétorique ou dialogue avec une ombre ?”, *Parcours et rencontres. Mélanges de langue, d’histoire et de littérature françaises offerts à Enea Balmas* t. 1, Paris: Klincksieck, pp. 835-861.
- \_\_\_\_\_ (1968), “Les *Lettres portugaises*, miracle d’amour ou miracle de culture”, *Cahier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études françaises* 20, pp. 19-37.
- Escola, Marc (2007), “L’auteur comme fiction”, *fabula*, 2021.06.01. [http://www.fabula.org/atelier.php?L%27auteur\\_comme\\_fiction\\_%3A\\_Guilleragues](http://www.fabula.org/atelier.php?L%27auteur_comme_fiction_%3A_Guilleragues)
- Goldstein, Claire (1997), “Love Letters: Discourses of Gender and Writing in the Criticism of the *Lettres portugaises*”, *Romanic Review* 88.4, pp. 571-590.
- Green, F. C. (1926), “Who was the author of the *Lettres portugaises*”, *Modern Language Review* 21.2, pp. 159-167.
- Jost, François (1968), “L’évolution d’un genre: le roman épistolaire dans les lettres occidentales”, *Essais de littérature comparée. II. Europaena, première partie*, Fribourg: Éditions Universitaires, pp. 89-179.
- Kamuf, Peggy (1980), “Writing like a Woman”, *Women and Language in Literature and Society* (ed. by Sally McConnell-Ginet, Ruth Borker and Nelly Furman, New York: Praeger, pp. 284-299.
- Lassalle, Thérèse (2004), ““La Femme rompue”. À propos de Mariane dans les *Lettres portugaises*”, *Des femmes: images et écritures* (ed. by Andrée Mansau), Toulouse: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pp. 49-59.
- Leiner, Wolfgang (1966), “De nouvelles considérations sur l’apostrophe initiale des *Lettres portugaises*”, *Romanische Forschungen* 78, pp. 548-566.
- \_\_\_\_\_ (1965), “Vers une nouvelle interprétation des *Lettres portugaises*: Mariane entre son amour et son amant”, *Romanische Forschungen* 77, pp. 64-74.
- Mallinson, Jonathan (1999), “Writing Wrongs: *Lettres portugaises* and the Search for an Identity”, *Writers and Heroines: Essays on Women in French*

- Literature* (ed. by Shirley Jones Day), Berne: Peter Lang, pp. 31-47.
- McAlpin, Mary (1999), "Poststructuralist Feminism and the Imaginary Woman Writer: the *Lettres portugaises*", *Romanic Review* 90.1, pp. 27-44.
- Pelous, Jean-Michel (1982), "La figure de l'amant dans les *Lettres portugaises*: vers une nouvelle définition des valeurs amoureuses",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20.2, 1982, pp. 79-85.
- \_\_\_\_\_ (1977), "Une héroïne romanesque entre le naturel et la rhétorique: le langage des passions dans les *Lettres portugaises*", *Revue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77.3-4, pp. 554-563.
- Racault, Jean-Michel (1984), "Un roman aux limites du roman: le soliloque de la passion dans les *Lettres de la religieuse portugaise*", *Visages de la féminité* (ed. by Université de la Réunion) Paris: Didier Érudition, pp. 81-111.
- Rousset, Jean (1972), "Du monologue narratif aux *Lettres portugaises*", *Narcisse romancier. Essai sur la première personne dans le roman*, Paris: José Corti, pp. 54-65.
- \_\_\_\_\_ (1962), "Une forme littéraire: le roman par lettres", *Forme et signification. Essais sur les structures littéraires du Corneille à Claudel*, Paris: José Corti, pp. 65-108.
- Schröder, Volker (2002), "Les méditations de Mariane: la matrice mystique des *Lettres portugaises*", *La femme au XVIIe siècle* (ed. by Richard G. Hodgson), Tübingen: Gunter Narr, pp. 283-299.
- Spitzer, Leo (1954), "*Les Lettres portugaises*", *Romanische Forschungen* 65, pp. 94-135.
- Verdier, Gabrielle (1982), "Remarques sur le style et la rhétorique des *Lettres portugaises*", *Actes de New Orleans* (ed. by Francis L. Lawrence), Paris/Seattle/Tuebingen: PFSCL, pp. 87-96.
- Versini, Laurent (1979), *Le roman épistolaire*, Paris: PUF.

원고 접수일: 2021년 7월 15일

심사 완료일: 2021년 7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1년 8월 4일

ABSTRACT

---

The Epistolary Madness:  
Guilleragues, *the Lettres portugaises*

Kim, Youngu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by analyzing Guilleragues' *Lettres portugaises* under the theme of epistolary madness, to decide their structure and their pla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First, the research history shows that the madness has been a main issue of the interpretation, and that its understanding is a matter of determining the mode of narration between monologue and dialogue. Leo Spitzer's study is the starting point, because it observes the transition from dialogue to monologue and the meaning of this transition which is a restoration of reason. However, our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Lettres* are composed of a succession of madness, and that each madness expresses a specific epistolary logic. Therefore, the *Lettres* must be regarded as an important moment in the history of the genre of epistolary novels, in that they investigate the modern subjectivity in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tter as medium.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